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6월 10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폐회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복 지원 우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훼손의 문제 등 논점 부각해 보류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6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7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친 본회의에서 11명의 구의원이 구정현안과 민생문제에 대해 구정질문과 일문일답, 구정답변을 했지만 특정사항이 없어 비교적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170회 임시회 주요처리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1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유근성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미아동복합청사에 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제3차 본회의에서 유근성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미아동복합청사 건립 전에 주민설명회에서 주차면수 47대 법정 42대를 설명하고 개정 당시에는 주차면수 37대, 법정 34대로 축소된 이유와 지하주차장을 출입시 주차패스가 협소해 2~3년 적지 않고는 출입을 할 수 없어 코너링

할 때 자동차 문짝에 닿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과 용적율이 250%에서 188.3%로 각인 부분, 수도사업소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수도사업소의 예산보조로 2~5층에 아리수물 공급을 받을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 부분 등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 박문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구의원이 서면질문을 할 때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보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장기적 정책적 문제도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노력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이다"고 질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구의원이 질문하면 부국정장이나 국정의 전결사항으로 서면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연 의원 등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자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대공동행동 단체에서 조례반대 포켓을 들고 특정단체에 대한 중복 지원 우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 훼손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반대 시위를 하였고, 회의 중에도 구의원들끼리 첨예한 대립 끝에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rmail.net〉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폐회

11명 의원의 구정질문 통해 구정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 활동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이 제170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6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7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

무리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1명의 구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구정현안과 민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70회 임시회 주요처리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지난 5일 열린 제17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장면.

강북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조례 등 안건처리하고 마쳐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6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7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1명의 구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구정현안과 민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70회 임시회 주요처리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

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근성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개정된 '미아동 복합정사'에 대한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유 의원은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차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진입하는 램프가 협소하여 주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수도사업소에 협조를 얻어 아리수를 공급 받지 못했던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박문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서면질문을 할 경우 적절한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북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7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1명의 구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구정현안과 민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을 위해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70회 임시회 주요처리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서울특별

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